

碩士 學位論文
指導教授 曹 仁 淑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 논문분석과
인용된 학술지에 관한 연구

An Bibliometric Analysi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of Korea

2006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 專攻

韓 美 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 仁 淑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 논문분석과
인용된 학술지에 관한 연구

An Bibliometric Analysi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of Korea

위 論文을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 專攻

韓 美 淑

韓美淑의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6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李 埈 男 

審査委員 姜 順 愛 

審査委員 智 仁 淑 

차 례

표 차 례	iv
그림차례	v
국문초록	vi
1.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4
2. 이론적 배경	5
2.1 학술지 활용과 인용문헌 분석	5
2.2 국내 선행연구	8
2.3 국외 선행연구	13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6
3.1 표본 집단의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16
3.2 자료의 분석	18
3.2.1 국내 문헌정보학 전공교수의 현황	18
3.2.2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 현황	19
3.2.3 표본집단 학회지의 게재논문 건수	20
3.3 학회지별 게재논문 분석	20
3.3.1 연도별 게재논문 분석	20
3.3.2 문헌정보학 교수의 직급별 분석	22
3.3.3 문헌정보학 교수의 성별 현황	24

3.3.4 소속대학별 게재논문 순위	25
3.3.5 단독/공동 게재논문 순위	27
3.3.6 교수 개인별 평균논문 건수	28
3.3.7 게재논문의 주제분류	29
3.3.8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	34
4. 학술지 인용문헌 분석	37
4.1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37
4.2 인용된 학술지의 수명	38
4.2.1 국내 학술지	38
4.2.2 국외 학술지	41
4.3 인용된 학술지의 인용빈도	43
4.3.1 국내 학술지	43
4.3.2 국외 학술지	45
5.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구독여부	47
5.1 국내 학술지	47
5.2 국외 학술지	49
6. 결론	51
참고문헌	54

부록 1. 국내 학술지 리스트	60
부록 2. 국외 학술지 리스트	61
영문초록	65

표 차 례

<표 1> 전국대학 문헌정보학 전공교수 현황	18
<표 2> 문헌정보학분야 6개 학회지의 현황	19
<표 3> 표본집단 학회지의 게재논문 건수	20
<표 4> 연도별 게재논문 분석	21
<표 5> 교수의 직급별 분석	23
<표 6> 교수의 성별 분석	24
<표 7> 소속대학별 게재논문 순위	26
<표 8> 단독/공동 게재논문 순위	27
<표 9> 10년간 교수 개인별 평균 게재논문	29
<표 10> 게재논문의 주제분류	32
<표 11> 서지학분야의 주제분류	33
<표 12>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	35
<표 13>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38
<표 14> 인용된 국내 학술지의 수명	40
<표 15> 인용된 국외 학술지의 수명	42
<표 16> 국내 학술지 인용빈도 순위	44
<표 17> 국외 학술지 인용빈도 순위	45
<표 18> 국내 학술지의 구독여부	48
<표 19> 국외 학술지의 구독여부	49

그림 차례

<그림 1> 학회지별 발표비율	22
<그림 2> 교수의 직급별 비율	23
<그림 3> 저자의 단독/공동논문 순위	28
<그림 4> 개인별 게재논문 비율	29
<그림 5> 주제분야 빈도수 추이	31
<그림 6> 서지학분야 주제분포	34
<그림 7> 자료유형별 인용빈도	36
<그림 8> 연도별 자료유형의 변화추이	36
<그림 9> 인용된 국내 학술지 수명의 변화추이	39
<그림 10> 인용된 국외 학술지 수명의 변화추이	41

국문 초록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식정보의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 전달방식 및 전달속도 등 많은 측면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IT기술 및 학문의 발달로 인하여 학문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그 분야의 연구자나 전문가의 수가 늘어나며 또한 그 연구내용 및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학회지나 전문학술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문의 발달과 학술적인 연속간행물의 간행종수가 지수함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증가한다는 사실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행태를 분석하여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술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학술지 구독리스트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에 게재된 문헌정보학 전공교수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학회지별 게재논문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을 하였다. 즉 학회지의 연도별 분석, 교수의 직급별 분석, 교수의 성별 현황, 소속대학별 게재논문 순위, 단독/공동 게재논문 순위, 교수 개인별 평균 논문 건수, 게재논문의 주제분류,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차적으로 학술지 인용문헌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학회지 게재논문 1,230편에 인용된 33,352편 중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 130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의 수명, 국내외 학술지 인용빈도 등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용빈도가 높은 전체 1.0%이상 인용된 국내외 43종의 학술지를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독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 130종 중 가장 인용빈도가 높은 43종을 선정하였다. 국내 학술지로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도서관”, “도서관문화” 순으로 인용이 많이 되었으며, 국외 학술지로는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y Trend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순으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인용문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도서관에서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를 선정, 구독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학회지 논문분석, 인용문헌, 인용분석, 학술지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식정보의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 전달방식 및 전달 속도 등 많은 측면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IT기술 및 학문의 발달로 인하여 학문의 영역이 세분화되고 그 분야의 연구자나 전문가의 수가 늘어나며 또한 그 연구내용 및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학회지나 전문학술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문의 발달과 학술적인 연속간행물의 간행종수가 지수함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증가한다는 사실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다.

학술정보의 축적과 이용에 관한 인류의 관심은 학문활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본다. 학회와 학술잡지의 출현은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로 하여금 정보의 상호교환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정보 유통의 수단이 되었다. 학술잡지는 정보의 신속한 전달수단으로서 종래 학자들 간에 사용되었던 상호 방문이나 편지의 역할을 대체 하였으며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 급격히 증가 발전하게 되었다.¹⁾

연구자들의 발표논문은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학회지에 게재된다. 연구자가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은 연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연구 주제의 선정으로부터 관련 정보의 선택 및 활용, 연구방법의 선정,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발표에 이

1) 한복희. 1988. 『학술잡지의 발달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학회의 성격과 규모 및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학문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학회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공식매체로서 최신정보원인 동시에 한 시대의 여론이나 사회의 조류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학문의 흐름이나 발전단계를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²⁾

대부분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회지를 통해 발표할 때 다른 연구자의 유사한 주제를 가진 연구결과물의 인용을 참고문헌을 통하여 밝히게 된다. 이러한 인용문헌은 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객관성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자료로 제시되거나 학회지나 연구자의 평가를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과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극대화하는 정보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행태를 분석하여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술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학술지 구독리스트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전국 문헌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수들의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어떤 학술지를 주로 인용하였는지 살펴보고, 인용빈도가 가장 많은 국내외 학술지를 순위별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지를 문헌정보학과가 개

2)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55-78.

설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독여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용문헌 분석결과는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각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문헌정보학분야의 소장 학술지를 선정, 구독하는데 필요한 기준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선정하여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5개 학회지 『서지학연구』,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총1,893편의 논문 중에서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수 이상이 게재한 1,230편(65.0%)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논문에 인용된 인용문헌은 총 33,352편으로 이중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문헌정보학 전공교수의 현황,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현황 그리고 표본집단 학회지의 게재논문 건수를 조사하였다. 또 학회지별 게재논문 분석에서는 학회지의 연도별 분석, 교수의 직급별 분석, 교수의 성별 현황, 소속대학별 게재논문 순위, 단독/공동 게재논문 순위, 교수 개인별 평균논문 건수, 게재논문의 주제분류,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술지 인용문헌 분석에서는 1,230편에 인용된 33,352편중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 130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학술지의 연도별 인용빈도,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의 수명,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의 인용빈도 등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인용빈도가 높은 전체 1.0%이상 인용된 국내외 43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여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38개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독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공동저자의 경우는 제1저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2001년에 창간되어 대상논문이 21건으로 다른 학회지와 표본대상 건수가 많은 차이를 보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술지 활용과 인용문헌 분석

학문이 독자적인 연구영역과 이론을 형성하여 발전해 가면서 일정기간까지 수행된 학문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학문적 위상과 앞으로의 학문 발전 방향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³⁾ 또 어떤 학회지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 학회지를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⁴⁾ 지식인에게 있어서 논문이 지식을 생산하는 수단이라면, 이렇게 생산된 지식의 유통, 수집, 확산 그리고 소비 과정 즉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학술지”라는 매개체이다. 이는 이미 세계 최초의 학술지로 알려져 있는 “Journal des Scavans”(1665)의 발간 이래 학술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다.⁵⁾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이란 인용한 문헌과 인용된 문헌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계량정보학의 한 연구분야이다. 즉 연구논문은 그 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를 주(註)나 참고문헌을 통해 표기함으로써 그 문헌이 관련 주제분야의 이론적 배경 틀 안에 어떻게 자리잡고 있으며 서지적 현상의 고유한 특성을 어떻게 내포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인용분석은 개인의 연구결과나 학회지

3)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4) 최희곤, 2003.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LISA & ISA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61-79.

5) 장덕현. 2003. 학술지 평가정책에 관한 고찰 -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359-376.

를 평가하며, 학술생산성, 학술커뮤니케이션, 문헌의 지적구조, 주제영역, 저자생산성 분포, 학회지의 노화현상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하며, 연구자에게 있어서 관련분야의 주요문헌을 검색하고 인용관계의 추적을 통해 선행조사 및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⁶⁾

Brookes는 인용분석의 타당한 근거를 더욱 분명히 하였는데, 각 분야의 교수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용동기를 밝히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인용동기를 제시하였다.

첫째, 가장 최신 논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인용한다.

둘째, 참고한 문헌의 주장을 비평·수정·논쟁하기 위해서 인용한다.

셋째, 수학적 혹은 물리적 방법, 결과, 결론들을 다른 문헌에서 빌어와 자신의 논문에 바탕이 되는 개념이나 이론으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인용한다.

넷째, 저자가 사용한 방법과 결과의 타당성을 독자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인용한다.

다섯째, 참고한 문헌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한다.

여섯째, 독자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알리기 위하여 인용한다.

일곱째, 다른 학자들이 인용을 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인용을 하게 된다. 즉 남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용한다는 것이다.⁷⁾

하지만 학술지의 발간회수와 수록논문수, 도서관 소장여부, 논문의 수명감소 또 인용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인용빈도가 계산되므로 인용된 기사가 얼마나 가치있게 인용되었는가 하는 질적인 측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학술지의 인용문헌분석

6) 김홍렬. 2005. 국내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운영현황 및 실태에 관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2(2): 23-39.

7) 서말숙. 2001. 『저자동시인용분석에 의한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은 기존 학술지의 계속구독 여부, 폐기, 신규 학술지의 구독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⁸⁾

즉 인용분석은 첫째, 내용분석을 이용한 주제분석을 통해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적인 내용 즉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학문의 특징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용문헌 패턴을 이용한 주제분석을 통하여 학문의 구조와 특성, 학문과 학문간의 의존도, 정보검색 기법으로서의 응용, 도서관의 구독 학술지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용빈도를 이용한 주제분석을 통해 자료의 이용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수명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⁹⁾

8) 홍기철. 2001. 문헌정보학분야의 외국학술잡지 이용빈도와 이용분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35-50.

9) 오세훈. 2005. 전게서.

2.2 국내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¹⁰⁾ 첫째는 학회지, 기관지, 학위논문 및 단행본을 대상으로 간행시기, 주제별 분포, 연구자의 인적 특성 및 연구방법 등을 계량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둘째는 연구논문에 제시된 참고문헌이나 인용된 문헌의 주제, 유형, 언어, 타학문의 의존도, 반감기 등을 조사하여 인용 동향을 밝힌 연구이다.

홍기철(2001)¹¹⁾은 학술잡지의 평가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로서 박사학위논문 50편을 대상으로 이용된 이용빈도와 이용분포를 연구하였다. 즉 학술잡지를 신규로 구독할 경우에는 이용빈도와 이용분포를 조사하여 양쪽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학술잡지를 우선적으로 구독해야 하며, 학술잡지의 선택과 취소는 여러 가지의 평가방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치주(2002)¹²⁾는 1996-2000년 기간 중에 간행된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도서관 문화』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영역과 주제의존도 및 핵심저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권 문헌보다 한국문헌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주제 분야는 문헌정보학(31.6%) 영역이 가장 활발하였고, 그 다음이 도서관경영(18.8%), 정보시스템(14.1%), 정보처리(10.6%)순 이었다. 또한 도서관현장에서는 단행본, 정기간행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의한 웹자원의 인용빈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성순과 최상기(2005)¹³⁾는 외국학술잡지의 인용분석을 통하여 인용

10) 오세훈. 2005. 상계서.

11) 홍기철. 2001. 전계서. pp.35-50.

12) 이치주. 2000.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분야 잡지를 통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년. 『정보관리학회지』, 19(3): 145-160.

13) 고성순, 최상기. 2005. 인용문헌 분석을 이용한 외국학술잡지 이용행태 분석. 『한국도서관

행태를 조사하였다. 인용분석 대상은 전주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 253명 중 2002년-2003년까지 2년 동안 국내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 258편에 인용된 외국학술잡지 총 4,749건 중 공학 1,030건, 자연과학 741건, 사회과학 2,286건, 인문과학 636건, 예체능 56건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공학분야 158종(66.9%), 자연과학분야 210종(84.3%), 사회과학 분야 251종(63.4%)은 단행본보다 학술잡지를 많이 인용하고 있었고, 68.2%가 SCI급에 등재된 학술잡지를 인용하고 있었으며, 발행연도가 6-10년 이내의 학술잡지 784건(24.4%)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한상완과 조인숙(1996)¹⁴⁾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의 학회지 논문의 내용분석을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도서관학논집』,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 등 4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연구자, 논문주제 및 참고문헌의 22,813건을 언어별 분포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제별 분포는 문헌정보학분야의 관종별 도서관 중 대학도서관(17.0%)이, 정보학분야는 정보검색(22.7%), 서지학분야는 고활자, 판본학 등을 포함한 고서지(72.4%)분야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문헌정보학회지와 도서관학논집에는 문헌정보학, 정보학 및 서지학의 논문이 종합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학회지에는 정보학의 논문이, 서지학연구에는 서지학에 관한 논문만이 게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강순애(1997)¹⁵⁾는 서지학분야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지학연구』 제1집~12집에 발표된 122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서지학분야의 주제영역을 8개의 연구영역, 소스문헌의 저자와 주제관련 사항, 인용문헌의 주제, 언어, 자료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서지학 연

· 정보학회지』, 36(1): 441-457.

14) 한상완, 조인숙. 1996.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도서관』, 51(1): 114-139.

15) 강순애. 1997. 한국의 서지학 연구 경향 - 『서지학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4집: 1-21.

구자들은 판본학과 목록학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현대의 새로운 이론체계에 의하거나 문헌정보학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인문과학적인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서은경(1997)¹⁶⁾은 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관리학회지』와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의 658건을 대상으로 정보학분야의 연구영역, 정보학 연구의 타학문 주제의존도, 정보학의 학제적 구조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학자들은 정보학 관련 잡지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며, 총 인용된 잡지의 50~60%가 정보학 관련 분야이며, 주요 주제영역은 자동문헌 분석과 정보검색 그리고 응용분야가 주요 관심사임을 발견하였다.

정진식(2001)¹⁷⁾은 1996년-2000년에 발표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39편의 주제별 분포와 그곳에 인용된 문헌 8,371편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 학문의 연구영역과 타 학문과의 주제의존도 및 지적구조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을 비롯한 정보학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84.4%이고, 타 학문분야는 15.6%임을 밝혔으며,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정기간행물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학회지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란주와 임지혜(2002)¹⁸⁾는 국내 서지학의 연구동향을 밝히기 위하여 2000년-2001년 2년동안 『서지학연구』에 발표된 논문 51편에 대한 주제를 8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판본학이 30편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문헌에 관한 연구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역사학 분야의 학회지가 가장 많이 인용 되었다는

16)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4(1): 269-291.

17) 정진식. 2001. 전거서. pp.55-78.

18) 이란주, 임지혜. 2002. 한국 서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 서지학 발간의 『서지학연구』에 한정하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3(1): 323-344.

것을 발견하였다.

손정표(2003)¹⁹⁾는 1957년-2002년간 문헌정보학 관련 7개 학회지, 16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창립기념논문집 3개 전문기관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5년-1999년 기간 중에 발행된 논문이 전체의 30.6%로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었으며, 그 다음이 2000년-2002년이 29.9%로 나타났다. 영역별 연평균 발표량 순위는 정보학(22.5%), 서지학(22.2%), 도서관경영(21.8%) 순이며, 각 주제별 영역은 문헌정보학교육, 도서관경영론 분야가 타주제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최희곤(2003)²⁰⁾은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LISA와 ISA에 수록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74편을 대상으로 DB에 수록한 인용문헌을 형태별, 국내외별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인용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회지에 인용된 문헌의 80%로 가장 많은 인용율을 보였으며, 1991년-1995년도의 문헌이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1996년-2002년도 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세훈(2005)²¹⁾은 1946년-2004년까지의 3개 전문기관지 및 3개의 학회지 논문 2,571편과 이에 인용된 문헌 30,418편을 대상으로 문헌과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제영역을 설정하고, 간행시기와 인용시기 등 연관성을 5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된 연구 주제가 출현하고 쇠퇴하며, 논문의 주제와 간행시기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피인용 외국 문헌정보학 문헌의 주제는 인용시기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하며 반감기

19)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20) 최희곤. 2003. 전게서.

21) 오세훈. 2005. 전게서.

는 평균 10년 미만이지만 주제에 따라 반감기에 차이가 있으며 연구자들의 자분야 의존도는 66.2%이고 타분야 의존도는 33.8%임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을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대학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신설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주제이다.

둘째, 선행연구에 적용된 연구방법은 학회지, 학위논문, 기관지, 기사 색인지를 대상으로 주제 및 간행시기별 생산성, 연구방법별, 저자의 인적 특성별, 논문의 내용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셋째,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은 주제별 분포, 반감기, 언어별, 형태별, 학문 의존도 등 조사 대상 기간 및 조사 대상 문헌이 일부 한정되어 있다.

2.3 국외 선행연구

Gross & Gross(1927)²²⁾에 의해 화학부문에서 인용문헌 분석이 최초로 시도되었다. 그는 미국 화학분야의 대표적 학회지인 “The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를 선택하여 1926년 1년간 247건의 기사에 실린 총 3,633건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화학분야 잡지문헌의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화학분야의 핵심잡지 리스트를 제안하였다.

Atkins(1988)²³⁾는 1975년-1984년까지 9종의 문헌정보학 학회지에 발표된 2,70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계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관리(269편)는 5.7%, 정보검색(230편)은 4.9%, 데이터베이스(227편)는 4.8%, 편목(192편)과 공공도서관(191편)은 4.1%, 도서관자동화(186편)는 4.0% 등의 순위를 제시하였다.

Jarvelin & Vakkari(1990)²⁴⁾는 1985에 발행된 37종의 핵심 문헌정보학 학회지에 게재된 833편의 논문을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통하여 연구주제의 분류기준을 크게 전문직, 도서관사, 연구방법론, 정보축적 및 검색 등 11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 서비스와 정보축적 및 검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60%에 달한 반면 정보추구(6%)와 학술 커뮤니케이션(7%)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Kajberg(1996)²⁵⁾는 1957년-1986년 사이에 덴마크 문헌정보학 관련

22) Gross, P. L. K. and Gross, E. M. 1927. College Libraries and Chemical Education. *Science*, 66: 385-389.

23) Atkins, Stephen E. 1988. Subject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75-1984. *Library Trends*, 36(4): 633-658.

24) Jarvelin, Kalervo and Vakkari, Pertt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25) Kajberg, Lief. 1996. A Content Analysi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erial Literature Published in Denmark, 1957-1986.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연속간행물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특정 지역과 국가에 관한 주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료, 장서, 건축 및 시설 순위로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Mubeen(1996)²⁶⁾은 화학분야 이용자들의 정보이용 패턴을 알아보고자 화학분야의 22개 박사학위 논문에 실린 인용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418개의 잡지가 연구에 활용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핵심 잡지 60개를 확인하였으며, 인용된 정보원의 형태는 학술잡지, 도서, 특허, 기술보고서, 회의록, 학위논문 순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Gläzel & Schoepflin(1999)²⁷⁾은 자연과학분야와 사회과학분야에서 참고문헌의 이용을 학회지와 비학회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회지와 비학회지는 주제 분야에 따라 인용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나, 참고문헌의 평균수명이 비슷하다는 것을 밝혀 비학회지의 학술적인 가치를 재고하였다.

Ginn(2003)²⁸⁾은 2001년-2002년 사이에 간행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 36명이 인용한 1,249편의 인용문헌을 대상으로 자료의 형태별, 인용 저자, 문헌의 연령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헌의 연령별 인용 분포는 최근 10년(1993-2002년)이내에 간행된 문헌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54.4%), 다음으로는 1983년-1992년(25.3%), 그리고 20년 이상(20.3%) 등의 순임을 제시하였다.

Pulgarín & Gil-Leiva(2004)²⁹⁾는 인용분석을 이용하여 학술생산성,

18(1): 25-52.

26) Mubeen, M. A. 1996. Citation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Chemistry. *Annals of Library Science and Documentation*, 43(2): 48-58.

27) Gläzel, Wolfgang and Schoepflin, Urs 1999. A bibliometric study of reference literature in the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5(1): 31-44.

28) Ginn, Lida K. 2003. Citation Analysis of Authored Article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001-2002. *Mississippi Libraries*, 67(4): 106-109.

학술커뮤니케이션, 문헌의 지적구조, 주제영역, 저자 의 생산성 분포, 학회지의 노화현상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활용은 특정분야의 영향력 있는 저자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헌을 통해 연결되어지는 저자들의 관계를 추적하여 학술커뮤니케이션 형상을 알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Dulle, et al.(2004)³⁰⁾은 탄자니아 농업과학자들의 인용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1989년-1999년의 소코인대학교의 석사논문 295편, 박사논문 21편, 회의자료 309편을 대상으로 인용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박사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박사논문에서 학술잡지 43%, 단행본 25.1%, 회의자료 10.3%가 인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Horri(2004)³¹⁾는 이란의 문헌정보학 분야 2,490편의 연구논문에 대한 현황과 주제분석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연구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의 순으로 많았으며, 주제분석은 서지통정(18.7%), 도서관 및 정보센터(14.8%), 정보추적 및 검색(10.2%), 도서관 이용 및 봉사(9.4%) 등 순임을 제시하였다.

국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선행연구는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한 주제분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용문헌 분석에서는 자료의 형태 및 문헌의 수명과 저자간의 학술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Pulgarín, Antonio and Gil-Leiva, Isidoro 2004.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Automatic Indexing Literature : 1956-2000.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0(2): 365-377.

30) Dulle, F. W. and Lwehabura, M. J. F. and Matovelo, D. S. and Mulimila, R. T. 2004. Creating a Core Journal Collection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anzania: Citation Analysis and User Opinion Techniques. *Library Review*, 53(5): 270-277.

31) Horri, Abbas. 2004. Bibliometric Overview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Productivity in Ira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15-25.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1 표본 집단의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수들이 게재한 논문으로 수집범위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5종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즉 『서지학연구』는 제12집~32집까지, 『정보관리학회지』는 제13권 1호~제22권 4호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제24집~제29집, 제30권 1호~제36권 4호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제30권 1호~제39권 4호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는 제8권 1호~제16권 2호까지이다. 여기에 게재된 총 논문 1,893편중 저자가 문헌정보학과 전임교수가 게재한 연구논문 1,230편(65.0%)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한 뒤 이 연구논문에 인용된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1차적으로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선정된 논문에서 인용된 학술지를 2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전공교수의 현황,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현황과 표본집단 학회지의 게재논문 건수를 조사하였다. 또 학회지별 게재논문 분석에서는 학회지의 연도별 분석, 교수의 직급별 분석, 교수의 성별 현황, 소속대학별 게재논문 순위, 단독/공동 게재논문 순위, 교수 개인별 평균논문 건수, 게재논문의 주제분류,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230편에 인용된 학술지 총 33,352편을 대상으로 인용빈도가 많은 130종으로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의 수명,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의 인용빈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용빈도수가 많은 전체 1.0%이상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 43종의 학술지를 순위별로 조사하여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38개의 국내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독여부를 확인하였다

3.2 자료의 분석

3.2.1 국내 문헌정보학 전공교수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시작된 것은 문헌정보학과(당시 도서관학과)가 대학에 본격적으로 설립된 1957년 이후이며 1980년대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학과 명칭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대폭 개정하였고, 1997년에는 학부제 도입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재정립 되었다.³²⁾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전국대학 문헌정보학 전공교수의 현황을 1998년, 2002년, 2005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005년 현재 전국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총 38개 대학으로 4년제 대학 32개교, 2년제 대학 6개교가 있으며, 대학교수는 총 16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년제 대학보다 2년제 대학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1> 전국대학 문헌정보학 전공교수 현황

구분 연도	4년제			2년제			합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1998년	91	56	147	23	7	30	114	63	177
2002년	90	54	144	22	8	30	112	62	174
2005년	89	58	147	14	7	21	103	65	168

<출처: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교수주소록 1998, 2002, 2005 참조>

32) 노영희. 2005.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전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479-503.

3.2.2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학회 현황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간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학회지는 아래 <표 2>에서 살펴보면 1970년에 창간된 한국문헌정보학회(구 한국도서관학회)가 간행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4년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984년에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 1985년에 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 1997년에 재발간된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01년에 한국기록관리학회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 현재 6개 학회의 학회지가 발행되고 있다.

<표 2> 문헌정보학분야 6개 학회지의 현황 (창간년도순)

구분 학회	학회지명	창간 년	현재의 간기	학진등재 선정년도	비 고
한국문헌 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1970	계간 (1996~)	2001	‘도서관학’에서 명칭 변경 (1993) 간기: 연간(1970~1988) ->반년간(1989~1995)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1974	계간 (1999~)	2001	‘도서관학논집’에서 명칭 변경(1999) 간기: 연간(1974~1994) ->반년간(1995~1998)
한국정보 관리학회	정보관리 학회지	1984	계간 (1999~)	2001	간기: 연간(1984) ->반년간(1985~1998)
서지학회	서지학연구	1985	년 3회 (2004~)	2001	간기: 연간(1985~1996) ->반년간(1997~2003)
한국비블리 아학회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1972	반년간 (2000~)	2005	‘한국비블리아’에서 명칭 변경(2005) 간기: 연간(1997~1999)
한국기록 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 학회지	2001	반년간 (2001~)	-	

본 연구에서는 2001년도에 창간된 한국기록관리학회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대상건수가 21건(1.68%)으로 다른 학회지와 많은 차이를 보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5종의 학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2.3 표본집단 학회지의 게재논문 건수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5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아래 <표 3>을 살펴보면 총 수록논문 1,893편중에서 저자가 국내 문헌정보학과 전임교수인 연구논문 1,230건(65.0%)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학회지별 대상건수이다.

<표 3> 표본집단 학회지의 게재논문 건수 (가나다순)

학회지 구분	서지학 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합계
총수록논문	285(15.1)	415(21.9)	551(29.1)	470(24.8)	172(9.1)	1,893(100)
표본대상	190(15.4)	221(18.0)	411(33.4)	305(24.8)	103(8.4)	1,230(100)

3.3 학회지별 게재논문 분석

3.3.1 연도별 게재논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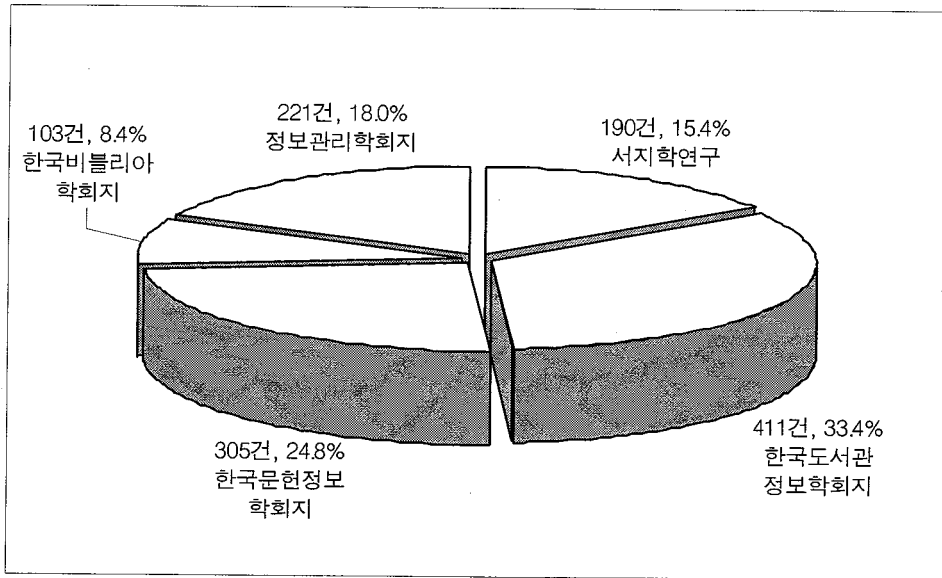
5개 학회지에 전임교수들이 게재한 논문은 총 1,230편(65.0%)으로 아래 <표 4> <그림 1>과 같다. 게재논문별로 보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411건(3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305건(24.8%), 『정보관리학회지』 221건(18.0%), 『서지학연구』 190건(15.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03건(8.4%)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 1996년에 4개 학회지에 73건(5.9%)이 수록되었고, 2000년에 5개 학회지에 130건(10.6%)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 하였으나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표 4> 연도별 게재논문 분석

(가나다순)

학회지 건 연도	서지학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합계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1996	8(11.0)	14(19.2)	33(45.2)	18(24.7)	-	73(5.9)
1997	16(16.0)	18(18.0)	29(29.0)	35(35.0)	2(2.0)	100(8.1)
1998	20(19.8)	13(12.9)	26(25.7)	36(35.6)	6(5.9)	101(8.2)
1999	22(18.8)	20(17.1)	39(33.3)	25(21.4)	11(9.4)	117(9.5)
2000	20(15.4)	30(23.1)	42(32.3)	26(20.0)	12(9.2)	130(10.6)
2001	16(12.0)	27(20.3)	49(36.8)	34(25.6)	7(5.3)	133(10.8)
2002	16(12.6)	14(11.0)	45(35.4)	38(29.9)	14(11.0)	127(10.3)
2003	16(11.5)	29(20.9)	47(33.8)	32(23.0)	15(10.8)	139(11.3)
2004	29(18.7)	25(16.1)	52(33.5)	33(21.3)	16(10.3)	155(12.6)
2005	27(17.4)	31(20.0)	49(31.6)	28(18.1)	20(12.9)	155(12.6)
총계	190(15.4)	221(18.0)	411(33.4)	305(24.8)	103(8.4)	1,230(100)



<그림 1> 학회지별 발표비율

3.3.2 문헌정보학 교수의 직급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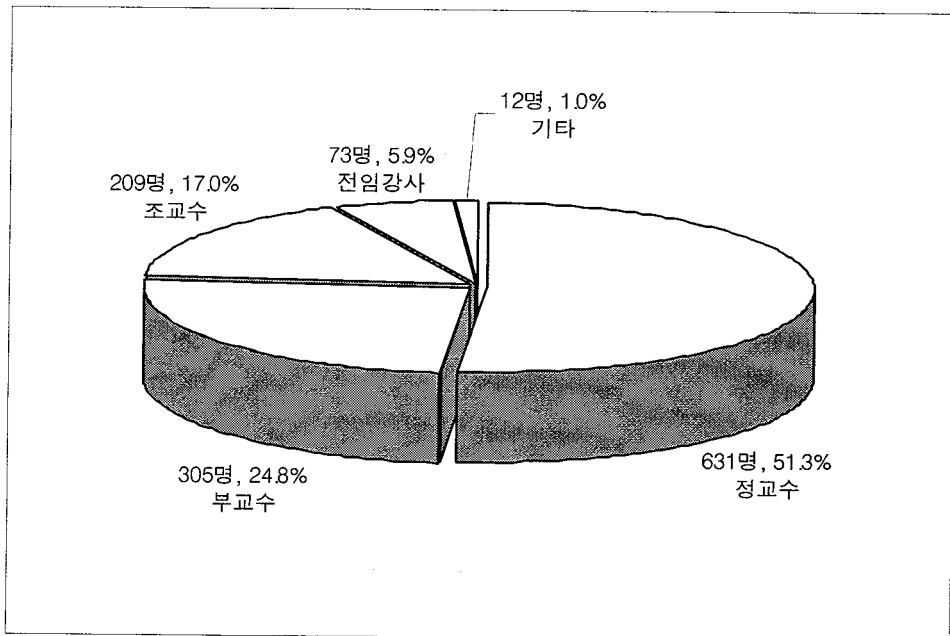
5개 학회지에 게재된 교수들의 직급은 <표 5><그림 2>에서와 같이 정교수 631명(51.3%), 부교수 305명(24.8%), 조교수 209명(17.0%), 전임강사 73명(5.9%), 기타 12명(1.0%)으로 조사되었다. 정교수의 게재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로 220명(34.9%)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교수 95명(31.1%), 조교수 69명(33.0%), 전임강사 25명(3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또 논문을 게재할 당시 명예교수, 대우전임, 객원교수, 특우전임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12명(1.0%)이 이에 속한다.

<표 5> 교수의 직급별 분석

(가나다순)

학회지 직급	서지학 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합계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정교수	91(14.4)	107(17.0)	220(34.9)	160(25.4)	53(8.4)	631(51.3)
부교수	57(18.7)	63(20.7)	95(31.1)	62(20.3)	28(9.2)	305(24.8)
조교수	28(13.4)	35(16.7)	69(33.0)	59(28.2)	18(8.6)	209(17.0)
전임 강사	8(11.0)	16(21.9)	25(34.2)	20(27.4)	4(5.5)	73(5.9)
기타	6(50.0)	0(0.0)	2(16.7)	4(33.3)	0(0.0)	12(1.0)
총계	190(15.4)	221(18.0)	411(33.4)	305(24.8)	103(8.4)	1,230(100)

*기타(명예교수, 대우전임, 객원교수, 특우전임 등)



<그림 2> 교수의 직급별 비율

3.3.3 문헌정보학 교수의 성별 현황

학회지별로 문헌정보학 교수의 성별 분석은 아래 <표 6>과 같다.

학회지별로 살펴보면 남자교수가 게재한 경우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303건(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70건(22.2%), 『서지학연구』 135건(17.6%), 『정보관리학회지』 118건(15.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1건(5.3%)순으로 나타났다. 또 여자교수가 게재한 경우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135건(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08건(23.3%), 『정보관리학회지』 103건(22.2%), 『서지학연구』 55건(11.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62건(13.4%)순으로 조사되었다. 총 1,230건을 교수의 성별로 보면 남자교수는 767건(62.4%)으로 여자교수 463건(37.6%)보다 게재논문 건수가 약 2배 정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6> 교수의 성별 분석

학회지 구분	서지학 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합계
건 구분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남	135(17.6)	118(15.4)	303(39.5)	170(22.2)	41(5.3)	767(62.4)
여	55(11.9)	103(22.2)	108(23.3)	135(29.2)	62(13.4)	463(37.6)
총계	190(15.4)	221(18.0)	411(33.4)	305(24.8)	103(8.4)	1,230(100)

3.3.4 소속대학별 게재논문 순위

소속대학별 최다 논문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표 7>과 같이 38개 대학중 상위 20개 대학의 순위를 직급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게재논문 건수는 총 863건(전체의 70.2%)으로 이중 425건(49.2%)이 정교수가 게재한 논문이었으며, 부교수 237건(27.5%), 조교수 150건(17.4%), 전임강사 41건(4.8%)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20순위에서 1~5순위까지만 살펴보면, U-1대학의 논문합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U-2대학 65건, U-3대학과 U-4대학 58건, U-5대학 51건으로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명을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기타 10건(1.2%)은 게재논문을 수록할 당시에 명예교수, 대우전임, 객원교수, 특우전임강사 등이다.

<표 7> 소속대학별 게재논문 순위

직급 건 순위(대학명)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기타	합계 (건)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U-1	42(56.8)	9(12.2)	23(31.1)	0(0.0)	0(0.0)	74
U-2	42(64.6)	15(23.1)	8(12.3)	0(0.0)	0(0.0)	65
U-3	20(34.5)	21(36.2)	9(15.5)	8(13.8)	0(0.0)	58
U-4	30(51.7)	19(32.8)	5(8.6)	4(6.9)	0(0.0)	58
U-5	5(9.8)	36(70.6)	8(15.7)	2(3.9)	0(0.0)	51
U-6	14(29.8)	10(21.3)	16(34.0)	7(14.9)	0(0.0)	47
U-7	33(70.2)	8(17.0)	2(4.3)	0(0.0)	4(8.5)	47
U-8	19(44.2)	10(23.3)	10(23.3)	4(9.3)	0(0.0)	43
U-9	26(61.9)	9(21.4)	5(11.9)	2(4.8)	0(0.0)	42
U-10	19(45.2)	15(35.7)	8(19.0)	0(0.0)	0(0.0)	42
U-11	19(48.7)	13(33.3)	4(10.3)	3(7.7)	0(0.0)	39
U-12	16(41.0)	10(25.6)	9(23.1)	0(0.0)	4(10.3)	39
U-13	0(0.0)	16(42.1)	15(39.5)	7(18.4)	0(0.0)	38
U-14	13(35.1)	16(43.2)	6(16.2)	0(0.0)	2(5.4)	37
U-15	12(35.3)	10(29.4)	12(35.3)	0(0.0)	0(0.0)	34
U-16	32(100.0)	0(0.0)	0(0.0)	0(0.0)	0(0.0)	32
U-17	18(58.1)	11(35.5)	2(6.5)	0(0.0)	0(0.0)	31
U-18	28(93.3)	2(6.7)	0(0.0)	0(0.0)	0(0.0)	30
U-19	27(93.1)	0(0.0)	2(6.9)	0(0.0)	0(0.0)	29
U-20	10(37.0)	7(25.9)	6(22.2)	4(14.8)	0(0.0)	27
총계	425(49.2)	237(27.5)	150(17.4)	41(4.8)	10(1.2)	863

3.3.5 단독/공동 게재논문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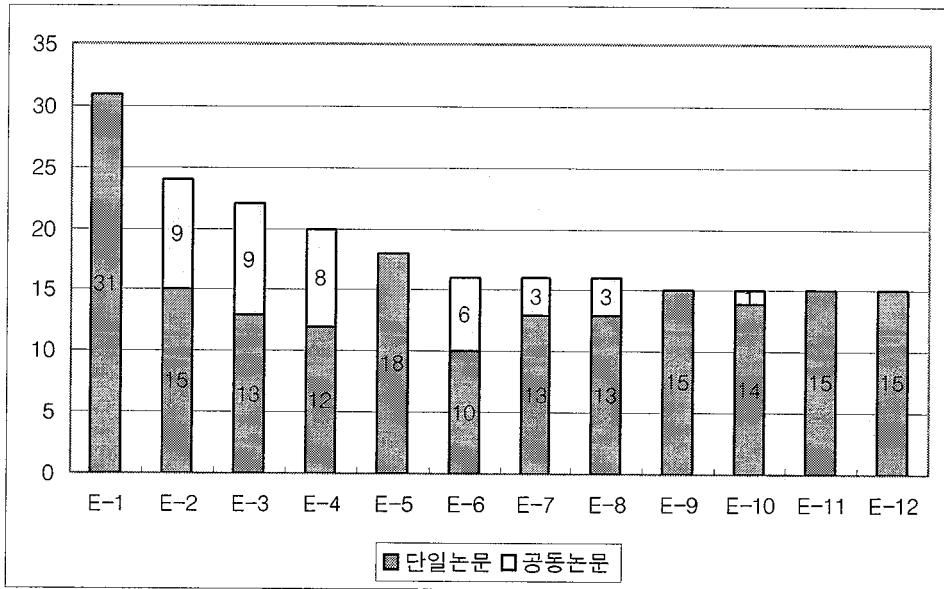
단독/공동 게재논문 최다 상위순위를 보면 교수 6명, 부교수 5명, 조교수 1명으로 총 12명이 <표 8><그림 3>과 같이 조사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단독논문을 선호하는 E-1교수와 E-11교수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수이며, E-5교수, E-9교수, E-12교수는 서지학분야의 교수이다. 즉 단독논문과 공동논문을 선호하는 교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강순애교수의 논문(1997)³³⁾에서 보면 122편의 논문중 단독 저자가 121편(99.2%)이고, 공저자는 단 1편(0.8%)에 불과하다는 결론과 비슷하였다. 즉 서지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단독 연구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게재논문 대상 최다 상위순위 30위에 포함된 서지학분야의 교수가 10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8> 단독/공동 게재논문 순위

순위	논문구분		단독논문(건)	공동논문(건)	논문합계(건)
	저자	직위			
1	E-1	교수	31		31
2	E-2	부교수	15	9	24
3	E-3	교수	13	9	22
4	E-4	부교수	12	8	20
5	E-5	교수	18		18
6	E-6	부교수	10	6	16
6	E-7	조교수	13	3	16
6	E-8	교수	13	3	16
7	E-9	부교수	15		15
7	E-10	교수	14	1	15
7	E-11	부교수	15		15
7	E-12	교수	15		15

33) 강순애. 1997. 전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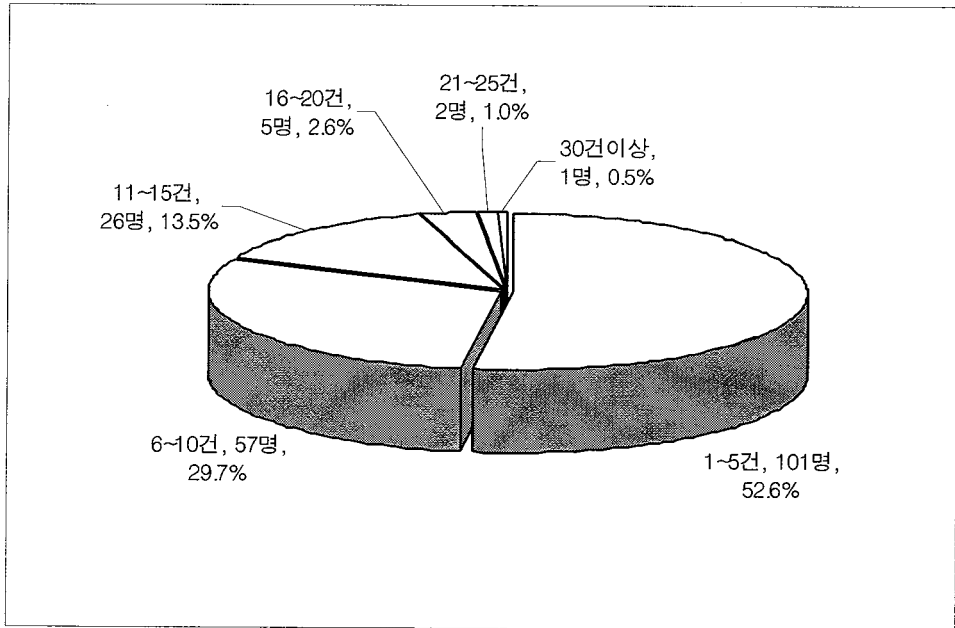
<그림 3> 저자의 단독/공동논문 순위

3.3.6 교수 개인별 평균논문 건수

개인별 평균 게재논문 건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본집단 총 1,230편을 조사한 결과 192명의 교수가 조사되었다. 아래 <표 9> <그림 4>와 같이 교수 개인별 10년간 게재논문 건수를 분석해 보면 1~5편을 발표한 경우가 101명(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6~10편 57명(29.7%), 11~15편 26명(13.5%), 16~20편 5명(2.6%), 21~25편 2명(1.0%)으로 나타났으며, 30편 이상 발표한 교수도 1명(0.5%)으로 조사되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회지에 10년간 연구논문을 게재한 교수 1인당 평균 게재논문 건수는 15.6편으로 교수 52.6%가 평균 1~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면 개인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10년간 교수 개인별 평균 게재논문 건수

건수	1~5	6~10	11~15	16~20	21~25	26~30	30이상	합계
저자수 (비율)	101 (52.6)	57 (29.7)	26 (13.5)	5 (2.6)	2 (1.0)	-	1 (0.5)	192 (100%)



<그림 4> 개인별 게재논문 비율

3.3.7 게재논문의 주제분류

주제분류는 연구논문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므로 연구목적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며, 분류원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³⁴⁾

34) 최희곤. 1999.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6(3): 137-158.

선행연구에서 정진식교수(1997)는 Jaervelin과 Vakkari(1990)의 분류 기준을 사용하되 정보학분야의 ISA를 참고로 하여 10개의 대주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1개의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분석 하였으며, 이치주(2002)도 정진식교수의 분류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서은경교수(1997)는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 Directory”분류방식으로 7개의 대주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28개의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손정표교수(2003)는 8개의 큰영역별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유사라교수(2003)³⁵⁾는 국내외 학술지를 중심으로 JASIST에 소개된 11항목 대주제와 61항목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학 분류구조(Taxonomy)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노정순교수(2006)는 JITA 분류표를 선택하여 12개의 대항목과 135개의 하위항목을 10구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렇게 많은 선행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주제분류표로 인하여 같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제분류를 하더라도 저자의 각 연구논문마다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 교수들은 소속대학으로부터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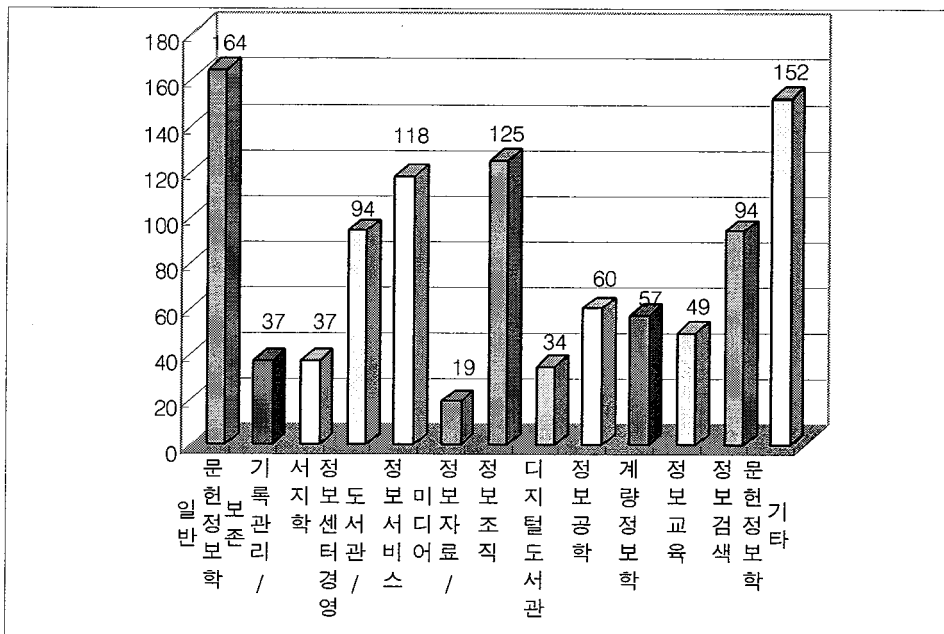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처음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분류표를 사용하여 분류하였으나 『서지학연구』를 세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헌정보학분야 4개 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분류표에 의해서 13개의 항목으로, 서지학분야 1개 학회지는 강순애교수가 구분한 8개의 항목으로 작성된 분류표를 사용하여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35) 유사라. 2003. 주요 학술지 주제분석을 통한 정보학 연구동향 비교. 『한국비블리아』, 14(2): 179-197.

36)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87-310.

3.3.7.1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제분류

4개 학회지 총 1,040건의 논문을 주제분류한 결과 <그림 5> <표 10>과 같이 문헌정보학 일반이 164건(1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조직 125건(12.0%), 정보서비스 118건(11.3%), 도서관/정보센터경영과 정보검색 94건(9.0%)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문헌정보학도 152건(14.62.2%)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주제분야 빈도수 추이

<표 10> 게재논문의 주제분류

학회지 건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 보학회지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합계
분야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수(비율)
문헌정보학 일반	14(8.5)	75(45.7)	57(34.8)	18(11.0)	164(15.8)
기록관리/ 보존	7(18.9)	12(32.4)	13(35.1)	5(13.5)	37(3.6)
서지학	0(0.0)	28(75.7)	6(16.2)	3(8.1)	37(3.6)
도서관/정보 센터경영	15(16.0)	48(51.1)	26(27.7)	5(5.3)	94(9.0)
정보서비스	21(17.8)	39(33.1)	44(37.3)	14(11.9)	118(11.3)
정보자료/ 미디어	4(21.1)	5(26.3)	6(31.6)	4(21.1)	19(1.8)
정보조직	26(20.8)	67(53.6)	27(21.6)	5(4.0)	125(12.0)
디지털 도서관	8(23.5)	9(26.5)	15(44.1)	2(5.9)	34(3.3)
정보공학	23(38.3)	16(26.7)	9(15.0)	12(20.0)	60(5.8)
계량 정보학	26(45.6)	15(26.3)	8(14.0)	8(14.0)	57(5.5)
정보교육	6(12.2)	20(40.8)	16(32.7)	7(14.3)	49(4.7)
정보검색	47(50.0)	11(11.7)	33(35.1)	3(3.2)	94(9.0)
기타문헌 정보학	24(15.8)	66(43.4)	45(29.6)	17(11.2)	152(14.6)
총계	221(21.3)	411(39.5)	305(29.3)	103(9.9)	1,040(100)

3.3.7.2 서지학분야의 주제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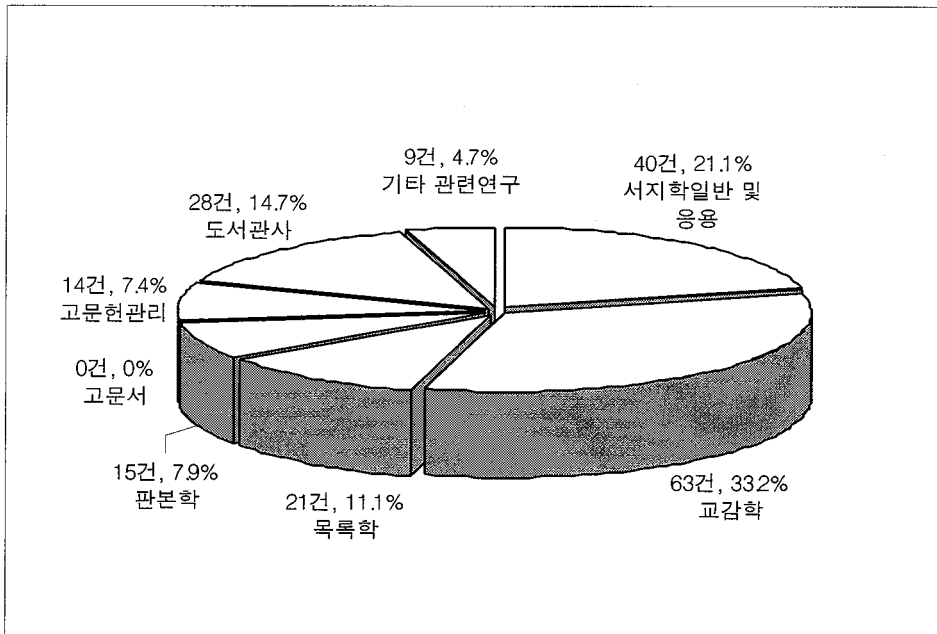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강순애교수(1997)³⁷⁾가 작성한 8개의 주제분류 즉 서지학일반 및 응용, 교감학, 목록학, 판본학, 고문서, 고문헌관리, 도서관사, 기타 관련연구를 이용하여 <표 11> <그림 6>과 같이 서지학분야의 190건을 주제분류 하였다. 강순애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판본학이 37.7%, 목록학이 32.7%의 비중을 차지한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감학 63건(33.2%), 서지학일반 및 응용 40건(21.1%), 도서관사 28건(14.7%)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논문의 주제분류에 있어서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된 주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표 11> 서지학분야의 주제분류

주제분야	건(비율)
서지학일반 및 응용	40(21.1)
교감학	63(33.2)
목록학	21(11.1)
판본학	15(7.9)
고문서	0(0.0)
고문헌관리	14(7.4)
도서관사	28(14.7)
기타 관련연구	9(4.7)
총 계	190(100.0)

37) 강순애. 1997. 전게서.



<그림 6> 서지학분야의 주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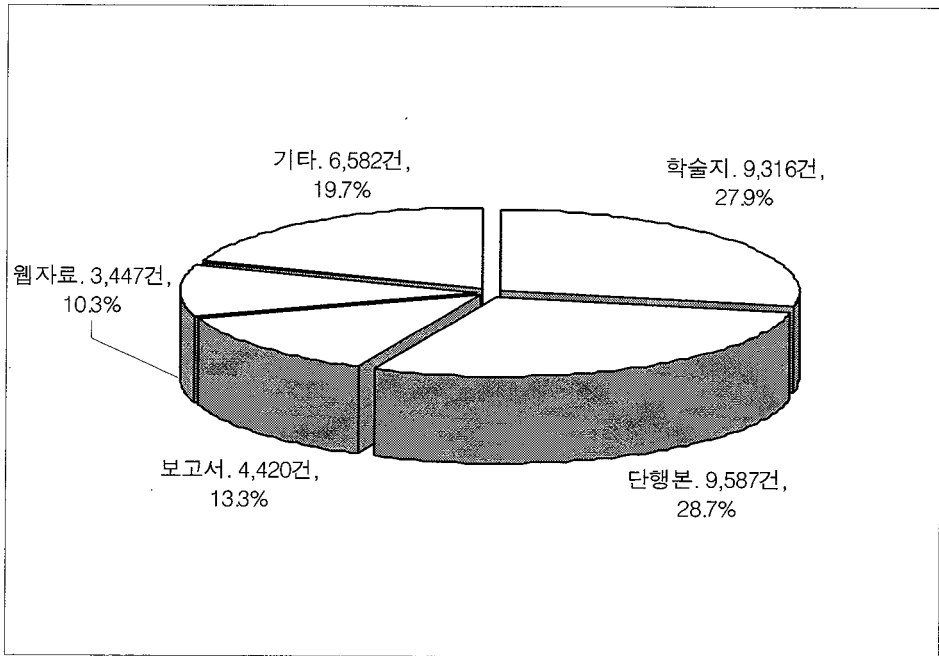
3.3.8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

자료의 평균이용을 살펴보면 전체 1,230편의 연구논문에 총 33,352건의 인용문헌이 수록되어 학술지 논문 1편에 평균 27.1건의 참고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아래 <표 12> <그림 7>의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을 살펴보면 단행본이 9,587건(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술지 9,316건(27.9%), 보고서 4,420건(13.3%), 웹자료 3,447건(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자료도 19.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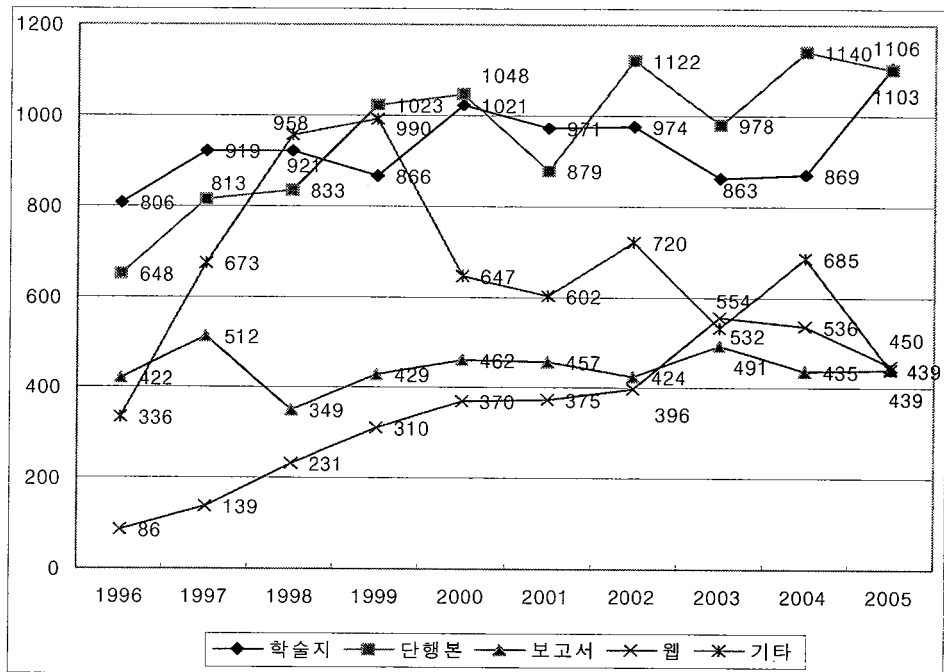
연도별 자료유형의 변화추이 <그림 8>에는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으나 2000년 이후부터 웹자료의 인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지와 단행본의 인용도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12> 연도별 인용문헌의 자료유형

연도 \ 유형 건	학술지	단행본	보고서	웹자료	기타	총계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1996	806 (8.7)	648 (6.8)	422 (9.5)	86 (2.5)	336 (5.1)	2,298 (6.9)
1997	919 (9.9)	813 (8.5)	512 (11.6)	139 (4.0)	673 (10.2)	3,056 (9.2)
1998	921 (9.9)	833 (8.7)	349 (7.9)	231 (6.7)	958 (14.6)	3,292 (9.9)
1999	866 (9.3)	1,023 (10.7)	429 (9.7)	310 (9.0)	990 (15.0)	3,618 (10.8)
2000	1,021 (11.0)	1,048 (10.9)	462 (10.5)	370 (10.7)	647 (9.8)	3,548 (10.6)
2001	971 (10.4)	879 (9.2)	457 (10.3)	375 (10.9)	602 (9.1)	3,284 (9.8)
2002	974 (10.5)	1,122 (11.7)	424 (9.6)	396 (11.5)	720 (10.9)	3,636 (10.9)
2003	863 (9.3)	978 (10.2)	491 (11.1)	554 (16.1)	532 (8.1)	3,418 (10.2)
2004	869 (9.3)	1,140 (11.9)	435 (9.8)	536 (15.5)	685 (10.4)	3,665 (11.0)
2005	1,106 (11.9)	1,103 (11.5)	439 (9.9)	450 (13.1)	439 (6.7)	3,537 (10.6)
합계	9,316 (27.9)	9,587 (28.7)	4,420 (13.3)	3,447 (10.3)	6,582 (19.7)	33,352 (100)



<그림 7> 자료유형별 인용빈도



<그림 8> 연도별 자료유형의 변화추이

4. 학술지 인용문헌 분석

4.1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를 <표 13>에서 살펴보면 학술지에 인용된 인용문헌 총 33,352건 중 국내 학술지는 4,439건(47.6%)이고, 국외 학술지는 4,877건(52.4%)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최희곤(2003)³⁸⁾의 국내외 학술지가 3 : 7의 비율을 보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4.8 : 5.2의 비율로 국내외 학술지의 인용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간에 차이는 문헌정보학 교수들이 해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국내 학술지보다 국외 학술지 인용이 2배정도 많은데 비하여 국내 학회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국내 학술지와 국외학술지의 인용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지학분야는 학술지보다 단행본이 많이 인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도별 인용빈도를 보면 국내외 학술지 모두 연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미미한 수치의 변동만을 보여준다.

38) 최희곤. 2003. 전계서. pp. 61-79.

<표 13> 국내외 학술지 연도별 인용빈도

구분 인용연도 건(비율)	국내	국외	총계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1996	307(6.9)	499(10.2)	806(8.7)
1997	363(8.2)	556(11.4)	919(9.9)
1998	312(7.0)	609(12.5)	921(9.9)
1999	323(7.3)	543(11.1)	866(9.3)
2000	553(12.5)	468(9.6)	1,021(11.0)
2001	491(11.1)	480(9.8)	971(10.4)
2002	509(11.5)	465(9.5)	974(10.5)
2003	419(9.4)	444(9.1)	863(9.3)
2004	496(11.2)	373(7.6)	869(9.3)
2005	666(15.0)	440(9.0)	1,106(11.9)
합계	4,439(47.6)	4,877(52.4)	9,31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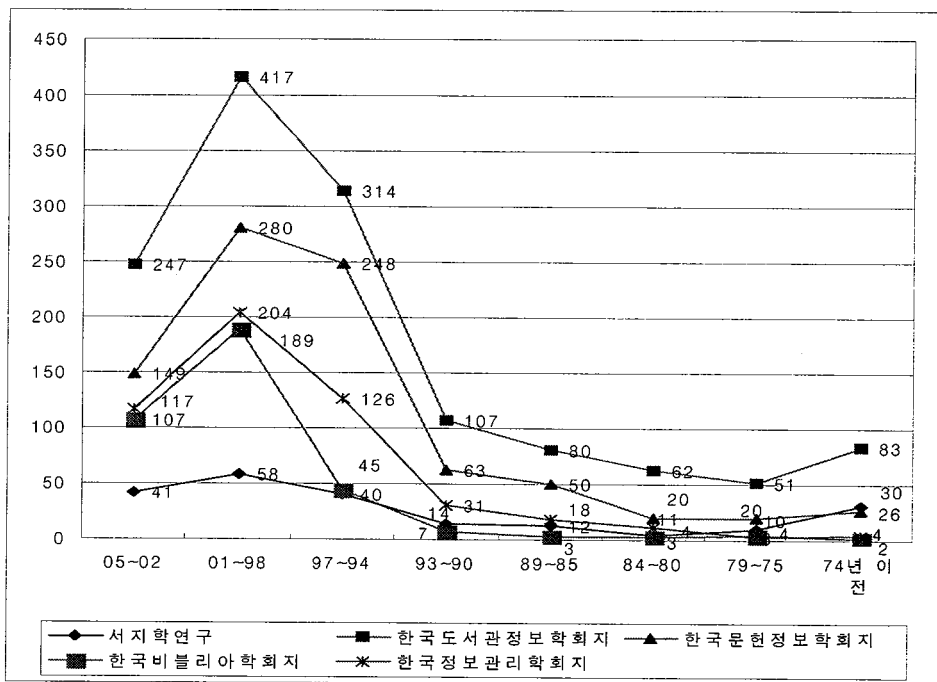
4.2 인용된 학술지의 수명

4.2.1 국내 학술지

간행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용문헌의 수명을 조사·분석한 결과 학술지에 인용된 문헌은 전체 국내 학술지 총 4,439건중 3,300건(74.3%)이었다.

아래 <그림 9> <표 14>를 살펴보면 4~7년(2001~1998) 사이에 간

행된 학술지가 1,148건(34.8%)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최신 자료인 간행된지 3년 이내(2005~2002)의 학술지는 661건(20.0%)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11년(1997~1994) 사이에 간행된 학술지는 773건(23.4%)으로 조사되었다. 간행연도를 기점으로 11년(2005~1994)이내에 간행된 논문이 2,582건(78.2%)으로 주로 많이 인용되었다. 또한 30년 이상된 학술지를 인용한 문헌도 145건(4.4%)으로 특히 『서지학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서 오래된 학술지를 인용한 경우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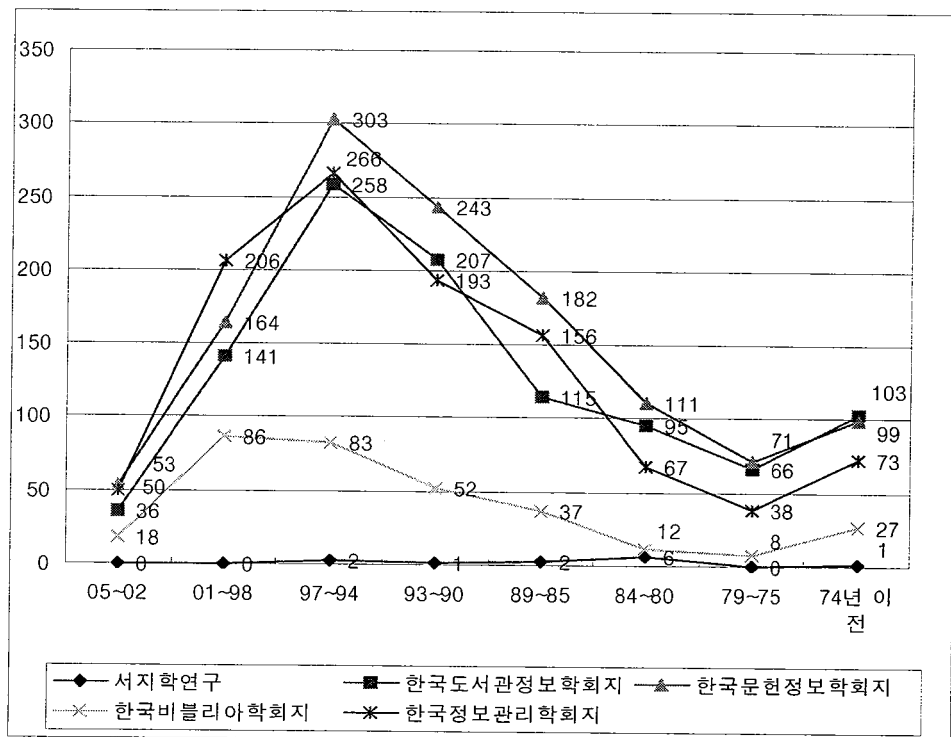
<그림 9> 인용된 국내 학술지 수명의 변화추이

<표 14> 인용된 국내 학술지의 수명

학회지 건 수명(연도)	서지학 연구 건(비율)	정보관리 학회지 건(비율)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건(비율)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건(비율)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건(비율)	합계 건(비율)
3년 이내 (05~02)	41 (6.2)	117 (17.7)	247 (37.4)	149 (22.5)	107 (16.2)	661 (20.0)
4~7년 (01~98)	58 (5.1)	204 (17.8)	417 (36.3)	280 (24.4)	189 (16.5)	1,148 (34.8)
8~11년 (97~94)	40 (5.2)	126 (16.3)	314 (40.6)	248 (32.1)	45 (5.8)	773 (23.4)
12~15년 (93~90)	14 (6.3)	31 (14.0)	107 (48.2)	63 (28.4)	7 (3.2)	222 (6.7)
16~20년 (89~85)	12 (7.4)	18 (11.0)	80 (49.1)	50 (30.7)	3 (1.8)	163 (4.9)
21~25년 (84~80)	4 (4.0)	11 (11.0)	62 (62.0)	20 (20.0)	3 (3.0)	100 (3.0)
26~30년 (79~75)	10 (11.4)	3 (3.4)	51 (58.0)	20 (22.7)	4 (4.5)	88 (2.7)
30년 이상 (74이전)	30 (20.7)	4 (2.8)	83 (57.2)	26 (17.9)	2 (1.4)	145 (4.4)
총계	209 (6.3)	514 (15.6)	1,361 (41.2)	856 (25.9)	360 (10.9)	3,300 (100)

4.2.2 국외 학술지

간행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용된 국외 학술지의 수명은 아래 <그림 10> <표 15>과 같이 국외 학술지 총 4,877건 중 3,631건(74.5%)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간행된지 8~11년된 학술지를 인용한 것이 912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12~15년 696건(19.2%), 4~7년 597건(16.4%), 16~20년 492건(13.5%)으로 밝혀졌다. 또 평균적으로 20년 이내의 학술지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학술지보다 인용수명이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간행된 학술지의 인용은 157건(4.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최신성을 필요로 하는 학술지 활용에 대한 의미를 무색하게 하였다.



<그림 10> 인용된 국외 학술지 수명의 변화추이

<표 15> 인용된 국외 학술지의 수명

학회지 수명(연도)	서지학 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합계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건(비율)
3년 이내 (05~02)	0 (0.0)	50 (31.8)	36 (22.9)	53 (33.8)	18 (11.5)	157 (4.3)
4~7년 (01~98)	0 (0.0)	206 (34.5)	141 (23.6)	164 (27.5)	86 (14.4)	597 (16.4)
8~11년 (97~94)	2 (0.2)	266 (29.2)	258 (28.3)	303 (33.2)	83 (9.1)	912 (25.1)
12~15년 (93~90)	1 (0.1)	193 (27.7)	207 (29.7)	243 (34.9)	52 (7.5)	696 (19.2)
16~20년 (89~85)	2 (0.4)	156 (31.7)	115 (23.4)	182 (37.0)	37 (7.5)	492 (13.5)
21~25년 (84~80)	6 (2.1)	67 (23.0)	95 (32.6)	111 (38.1)	12 (4.1)	291 (8.0)
26~30년 (79~75)	0 (0.0)	38 (20.8)	66 (36.1)	71 (38.8)	8 (4.4)	183 (5.0)
30년 이상 (74이전)	1 (0.3)	73 (24.1)	103 (34.0)	99 (32.7)	27 (8.9)	303 (8.3)
총계	12 (0.3)	1,049 (28.9)	1,021 (28.1)	1,226 (33.8)	323 (8.9)	3,631 (100)

4.3 인용된 학술지의 인용빈도

국내 학술지 24종, 국외 학술지 106종을 포함하여 총 130종을 대상으로 하여 이중 인용빈도가 많은 전체 1.0% 이상되는 국내외 학술지는 43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내 학술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구 도서관학은 99건으로 3.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구 도서관학논집은 244건으로 7.4%), 『도서관문화』(구 도협월보는 70건으로 2.1%)와 국외 학술지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구 “RQ”는 85건으로 2.3%)의 4종은 이전서명으로 인용빈도가 많았다.

4.3.1 국내 학술지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 학술지 24종의 인용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표 16>과 같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1.0% 이상 차지한 학술지는 13종이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812건(24.6%)으로 가장 많은 인용빈도를 나타냈으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639건(19.4%), 『정보관리학회지』 504건(15.3%)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서지학연구』 133건(4.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88건(2.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5건(2.0%)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 모두가 상위권에 들었다. 또한 『도서관』, 『도서관문화』, 『국회도서관보』는 각 대학도서관에서 기증받는 자료로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표 16> 국내 학술지 인용빈도 순위

순위	국내학술지명	ISSN NO	인용빈도(비율)
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225-598X	812(24.6)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013-0799	639(19.4)
3	정보관리학회지	1225-0902	504(15.3)
4	도서관	1011-2073	297(9.0)
5	도서관문화	1225-5521	254(7.7)
6	국회도서관보	0027-8572	193(5.9)
7	서지학연구	1225-5246	133(4.0)
8	정보관리연구	0254-3621	101(3.1)
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29-2435	88(2.7)
10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98-1487	65(2.0)
11	국가기록연구(구. 기록보존)	1975-8057	60(1.8)
12	기록학연구	1229-7941	45(1.4)
13	(디지털)도서관	1226-5802	34(1.0)

4.3.2 국외 학술지

인용빈도가 많은 국외 학술지 106종의 인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17>에서와 같이 인용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1.0% 이상 차지한 국외 학술지는 30종 이었다. 즉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는 379건(10.4%),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는 255건(7.0%),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은 248건(6.8%), “Library Trends”는 221건(6.1%)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특히 3-4종의 학술지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 홍기철(2001)³⁹⁾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상위 학술지에 인용빈도가 집중되어 있음이 분석되었다.

<표 17> 국외 학술지 인용빈도 순위

순위	국외학술지명	ISSN NO	인용빈도 (비율)
1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532-2882	379(10.4)
2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0010-0870	255(7.0)
3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0099-1333	248(6.8)
4	Library Trends	0024-2594	221(6.1)
5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0740-8188	149(4.1)
6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0306-4573	131(3.6)
7	Library Journal	0363-0277	113(3.1)
8	The American Archivist	0360-9081	103(2.8)

39) 홍기철. 2001. 전계서. pp. 35-50.

8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1094-9054	103(2.8)
10	The Library Quarterly	0024-2519	94(2.6)
11	Online	0146-5422	89(2.5)
12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0730-9295	87(2.4)
13	The Journal of Documentation	0022-0418	85(2.3)
14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0024-2527	84(2.3)
15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0163-9374	80(2.2)
16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0193-0826	78(2.2)
17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0748-5786	76(2.1)
18	Library Hi Tech	0737-8831	74(2.0)
19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0066-4200	70(1.9)
20	Aslib Proceedings	0001-253X	55(1.5)
21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0165-5515	54(1.5)
22	The Serials Librarian	0361-526X	52(1.4)
23	Communications of the ACM	0001-0782	50(1.4)
24	Library Association Record	0024-2195	49(1.4)
25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0194-262X	47(1.3)
26	現代の図書館(日本)	0016-6332	46(1.3)
27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0888-4463	43(1.2)
28	Advances in Librarianship	0065-2830	41(1.1)
28	Online information Review	1468-4527	41(1.1)
30	學校圖書館(日本)	0435-0405	40(1.1)

5.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구독여부

문헌정보학 분야의 인용빈도가 전체의 1.0% 이상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 130종을 대상으로 인용이 높은 국내외 43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여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38개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현재의 구독여부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먼저 소장자료에 대한 자료검색을 하여 서지사항을 확인한 후 체크인 정보에서 입수 구독현황을 확인하였다. 자료소장 여부는 전자학술지와 인쇄학술지로 구분하여 구독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 전자학술지와 인쇄학술지의 중복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인쇄학술지를 대체하여 전자학술지로 구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사한 결과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지는 구독도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표 18, 표 19 참조> 이는 홍기철(2001)의 연구에서 인용빈도와 이용분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5.1 국내 학술지

아래 <표 18>에서 살펴보듯이 국내학술지는 13종을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국내 38개의 대학도서관에서 구독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를 구독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내 학술지 중 기증을 받는 『도서관문화』가 35대학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34개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도서관』, 『국회도서관보』도 발행기관에서 기증을 하는 자료로 많이 인용되었다.

<표 18> 국내 학술지의 구독여부

국내 학술지명	발행기관	구독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	3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0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34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33
도서관문화	한국도서관협회	35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33
서지학연구	서지학회	27
정보관리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	3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	21
국가기록연구(구 기록보존)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25
기록학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19
(디지털)도서관	한국디지털도서관	29

5.2 국외 학술지

인용빈도가 전체의 1.0% 이상인 국외학술지 30종을 38개의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독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즉 국외 학술지 “The Libray Quarterly”와 “Library Trends”는 20개 대학,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는 19개 대학에서 구독중인 자료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이한 점은 “The Library Quarterly”가 가장 많은 대학에서 구독함에도 인용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19> 국외 학술지의 구독여부

국외 학술지명	발행기관	구독수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ohn Wiley & Sons ASIS	16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Elsevier Science, JAI Mountainside Pub.	18
Library Trends	University of Illinois Library School	20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Elsevier Science, JAI Ablex Pub. Corp.	14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Pergamon Press Elsevier	19
Library Journal	Bowker Cahners Pub. Co., etc.	18
The American Archivist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5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구 RQ)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2
The Library Quarterl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

Online	Online, inc Information Today Inc.	16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19
The Journal of Documentation	ASLIB, Emerald,	18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7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Haworth Press	12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Haworth Press	9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11
Library Hi Tech	Pierian Press	12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6
Aslib Proceedings	Aslib	13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North-Holland	9
The Serials Librarian	Haworth Press	9
Communications of the 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13
LA Record	Library Association	1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Haworth Press	2
現代の図書館	日本図書館協會	7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ssociation	7
Advances in Librarianship	Academic Press	1
Online information review	MCB University Press	12
學校圖書館(日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

6. 결 론

오늘날 사회가 다양해지고, 학문이 고도로 발전하며 전문화됨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는 다양해지고 정보의 전문성과 최신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보요구의 특성에 잘 부합되는 학술지의 가치는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연구행태를 분석하여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술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할 학술지 구독리스트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5개 학회지에 게재된 문헌정보학 전공교수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어떤 학술지를 주로 인용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또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를 순위별로 조사하여 인용빈도가 높은 학술지를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독여부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회지의 게재논문을 분석한 결과 1996년보다 2000년에 2배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문헌정보학 교수의 직급별·성별 분석은 5개 학회지 모두 정교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자교수가 여자교수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독/공동 게재논문 순위에서는 저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서지학분야의 교수들이 단독연구를 선호하고 있었다. 또 교수 개인별 게재논문을 보면 10년 동안 교수 1인당 평균 게재논문 편수는 15.3건으로 조사되었으나 교수 52.1%가 평균 1~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면 개인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제분류에 대한 분석은 문헌정보학과 서지학분야로 나누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주제분석은 문헌정보학일반 164건(15.8%), 정보조직 125건(12.0%), 정보서비스 118건(11.3%), 도서관/정보센터경영과 정보검색 94건(9.0%)순 이었으며, 서지학분야는 교감학 63건(33.2%), 서지학일반 및 응용 40건(21.1%), 도서관사 28건(14.7%)순으로 조사 되었다.

셋째, 전체 표본 대상 1,230편에 인용된 참고문헌이 33,352건으로 평균 1편에 27.1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자료유형을 보면 단행본 9,587건(28.7%), 학술지 9,316건(28.7%), 보고서 4,420건(13.3%), 웹자료 3,447건(10.3%)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인용된 국내외 학술지의 수명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 학술지는 4~7년(2001~1998년)에 1,148건(34.8%), 국외 학술지는 8~11년(1997~1994년)에 912건(25.1%)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다섯째,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 총 130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용빈도가 많은 국내외 학술지는 43종이 선정되었다. 이중 국내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812건(24.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639건(19.4%)으로 많았으며, 국외학술지는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가 379건(10.4%),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가 255건(7.0%)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국내외 학술지 모두 3~4종에 집중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용빈도가 높은 국내 13종, 국외 30종 총 43종의 학술지를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38개의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재 구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 학술지로는 『도서관문화』가 35개 대학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가 34개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국외 학술지로는 “The Libray Quarterly”와 “Library Trends”는 20개 대학에서,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는 19개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용빈도 순위와 학술지 구독순위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인쇄형태의 학술지를 구독중지하고 전자형태의 학술지로 대체하여 구독하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용문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도서관에서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를 선정, 구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후속연구로 문헌정보학분야 전자자원의 인용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순애. 1997. 한국의 서지학 연구 경향 - 『서지학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4집: 1-21.
- 고성순, 최상기. 2005. 인용문헌 분석을 이용한 외국학술잡지 이용행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441-457.
- 김홍렬. 2005. 국내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 운영현황 및 실태에 관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2(2): 23-39
- 노영희. 2005.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전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479-503.
- 서말숙. 2001. 『저자동시인용분석에 의한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 서은경. 1997.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4(1): 269-291.
-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 유사라. 2003. 주요 학술지 주제분석을 통한 정보학 연구동향 비교. 『한국비블리아』, 14(2): 179-197
- 이란주, 임지혜. 2002. 한국 서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 서지학 발간의 『서지학연구』에 한정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323-344.
-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회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87-310.

- 이치주. 2002.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분야 잡지를 통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 1996년~2000년. 『정보관리학회지』, 19(3): 145-160.
-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55-78.
- 최희곤. 1999.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6(3): 137-158
- 최희곤. 2003.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LISA & ISA 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61-79.
- 한복희. 1988. 『학술잡지의 발달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 한상완, 조인숙. 1996.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도서관』, 51(1): 114-139.
- 홍기철. 2001. 문헌정보학분야의 외국학술잡지 이용빈도와 이용분포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35-50.
-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KHPapp/index.jsp>>.
- DBpia. <<http://dbpia.co.kr/>>.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 홈페이지 주소

서지학회. <<http://www.biblio.or.kr/index.htm>>.

정보관리학회. <<http://www.kosim.or.kr/html/intra.html>>.

한국기록관리학회. <<http://www.ras.or.kr/modules/doc/index.php?doc=main>>.

한국도서관·정보학회. <<http://www.liss.or.kr/>>.

한국문헌정보학회. <http://www.kliss.or.kr/ls_2.html>.

한국비블리아학회. <http://www.biblia.or.kr/info_greeting.html>.

문헌정보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38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주소

강남대학교 <<http://lib.kangnam.ac.kr/Sky/Users/knul/OpacMain.aspx>>.

건국대학교 <<http://kkul.konkuk.ac.kr/SlimaDL/>>.

경기대학교

<<http://library.kyonggi.ac.kr/dlsearch/TGUI/Theme/KYONGGI/index.asp>>.

경북대학교 <<http://kudos.knu.ac.kr/>>.

경성대학교 <<http://kulis1.kyungsung.ac.kr/>>.

계명대학교

<<http://lib.kmu.ac.kr/DLSearch/tgui/theme/main/kmuniv/index.asp>>.

공주대학교 <<http://knulib.kongju.ac.kr/>>.

광주대학교 <<http://klic.gwangju.ac.kr/sub03/sub01.php>>.

대구가톨릭대학교 <<http://lib.cu.ac.kr/index.asp>>.

대구대학교 <<http://203.244.128.82/wlibrary/>>.

대림대학 <<http://library.daelim.ac.kr:8080/index.jsp>>.

대진대학교

<<http://library.daejin.ac.kr/dlsearch/TGUI/Theme/Daejin/index.asp>>.

덕성여자대학교 <<http://discover.duksung.ac.kr/index.jsp>>.

동덕여자대학교 <<http://ddlib.dongduk.ac.kr/>>.

동원대학 <<http://library.tongwon.ac.kr/volcanoi/local/docs/intro01.html>>.

동의대학교 <<http://lib.deu.ac.kr/SlimaDL/>>.

명지대학교 <<http://lib.mju.ac.kr/>>.

부산대학교

<<http://pulip.pusan.ac.kr/dlsearch/TGUI/Theme/PULIP/index.asp>>.

부산여자대학 <<http://malic.pwc.ac.kr/Opac/SearchForm.aspx>>.

상명대학교 <<http://lib.smu.ac.kr/dlsearch/TGUI/Theme/Web/index.asp>>.

서울여자대학교

<<http://lib.swu.ac.kr/dlsearch/TGUI/Theme/Web/index.asp>>.

성균관대학교 <<http://skkcl.skku.ac.kr/skkcl.htm>>.

숙명여자대학교

<<http://lib.sookmyung.ac.kr/dlsearch/TGUI/Theme/theme1/main.asp>>.

충의여자대학 <<http://lib.sewc.ac.kr/IPLUS/index.asp>>.

신라대학교 <<http://library.silla.ac.kr/>>.

연세대학교 <<http://library.yonsei.ac.kr/dlsearch/Theme/Yonsei/main.asp>>.

이화여자대학교

<<http://lib.ewha.ac.kr/dlsearch/TGUI/Theme/Web/index.asp>>.

인천전문대학 <<http://lib.icc.ac.kr/index.php>>.

전남대학교 <<http://library.chonnam.ac.kr/>>.

전북대학교

<<http://dl.chonbuk.ac.kr/dlsearch/TGUI/Theme/Chonbuk/main.asp>>.

전주대학교 <<http://lib.jj.ac.kr/dlsearch/TGUI/Theme/Web/index.asp>>.

중부대학교 <<http://julis.joongbu.ac.kr/>>.

중앙대학교 <<http://www.lib.cau.ac.kr/>>.

창원전문대학 <<http://lib.changwon-c.ac.kr/SlimaDL/>>.

청주대학교 <<http://wuam.cju.ac.kr/main.htm>>.

충남대학교 <<http://clins.cnu.ac.kr/dlsearch/TGUI/Theme/Web/main.asp>>.

한남대학교

<<http://hanul.hannam.ac.kr/dlsearch/TGUI/Theme/hannam/index.asp>>.

한성대학교 <<http://hse1.hansung.ac.kr/HSEL/>>.

국외문헌

- Horri, Abbas. 2004. Bibliometric Overview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Productivity in Ira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15-25.
- Atkins, Stephen E. 1988. Subject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75-1984. *Library Trends*, 36(4): 633-658.
- Dulle, F. W. and Lwehabura, M. J. F. and Matovelo, D. S. and Mulimila, R. T. 2004. Creating a Core Journal Collection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anzania: Citation Analysis and User Opinion Techniques. *Library Review*, 53(5): 270-277.
- Gross, P. L. K. and Gross, E. M. 1927. College Libraries and Chemical Education. *Science*, 66: 385-389.
- Gläzel, Wolfgang and Schoepflin, Urs. 1999. A Bibliometric Study of Reference Literature in the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5(1): 31-44.
- Jarvelin, Kalervo and Vakkari, Pertt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Kajberg, Leif. 1996. A Content Analysi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erial Literature Published in Denmark, 1957-1986.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1): 25-52.
- Ginn, Lida K. 2003. Citation Analysis of Authored Article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001-2002. *Mississippi Libraries*, 67(4): 106-109.
- Mubeen, M. A. 1996. Citation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Chemistry. *Annals of Library Science and Documentation*, 43(2): 48-58.

Pulgarín, Antonio and Gil-Leiva, Isidoro. 2004. Bibliometric Analysis of the Automatic Indexing Literature : 1956-2000.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0(2): 365-377.

부록 1. 국내 학술지 리스트

(가나다순)

번호	국내 학술지명
1	계간 저작권
2	과학과사상
3	국립도서관보
4	국회도서관보
5	기록보존
6	기록학연구
7	도서관
8	도서관계
9	도서관문화
10	도서관소식
11	도서관연구
12	도서관운동
13	디지털도서관
14	서지학연구
15	저작권문화
16	정보과학회지
17	정보관리연구
18	정보관리학회지
19	정보화사회
20	정보화저널
2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부록 2. 국외 학술지 리스트

번호	국외 학술지명
1	大學圖書館研究(日本)
2	圖書館(中國)
3	圖書館界(日本)
4	圖書館論壇(中國)
5	圖書館雜誌(日本)
6	圖書館雜誌(中國)
7	圖書館學研究(中國)
8	讀書科學(日本)
9	專門圖書館(日本)
10	情報管理(日本)
11	情報の科學と技術(日本)
12	學校圖書館(日本)
13	現代の圖書館(日本)
14	AALL Spectrum
15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6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	ACM Trans. on Database Systems
18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0	Advances in Librarianship
21	AEDS Journal
22	American Archivist
23	American Documentation
24	American Libraries
2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Bulletin

26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7	Aslib Information
28	Aslib Proceedings
29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30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31	Behavioral & Social Science Librarian
32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3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34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5	CD-ROM Professional
36	Collection Management
37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8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39	Communications of the ACM
40	Computers in Libraries
41	Database
42	Database Searcher
43	D-Lib Magazine
44	Electronic Library
45	IFLA Journal
46	Information & Management
47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8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49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50	International Cataloguing & Bibliographic Control
51	Inter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 Document
52	International Journal of Man-Machine Studies
53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54	Internet World
55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 Education
56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57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8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60	Journal of Librarianship
61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62	Journal of Library Automation
63	Journal of Retailing
64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6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6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67	Law Library Journal
68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69	Library Acquisition
70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71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
72	Library Association Record
73	Library Hi Tech
74	Library Journal
75	Library Research
76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77	Library Review
78	Library Trends
79	Management Science
80	OCLC System & Services

81	Online
82	Online Information Review
83	Program
84	Psychological Review
85	Public Libraries
86	Public Library Quarterly
87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88	Reference Librarian
89	School Library Journal
90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91	Science
92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93	Science Education
94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Processing
95	Scientometrics
96	Serials Review
97	Sloan Management Review
98	Social Science Information Studies
99	Special Libraries
100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101	The Acquisitions librarian
102	The Electronic Library
103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04	The Journal of Documentation
105	The Serials Librarian
106	Wilson Library Bulletin

ABSTRACT

An Bibliometric Analysi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of Korea

Han Mi-Suk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a changing society, the gener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order to generate new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take different strategies from the past in many areas including the accumulation and utilization, transfer method, and transfer speed of knowledge informa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cience, the area of science is becoming segmented with increasing numbers of researchers or professionals in the field. Also, the number of journal articles or special literature that provide us with the contents of research and results are consistently increasing.

Through existing research, it has already been understood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has a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ypes of publication of serial

publica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lies in researching what kind of literature is mainly used by researchers in the related field by analyzing the research pattern of researchers who major in the same field of science, and to propose a list of literature that is indispensable for college libraries to prepare.

This study, which was aimed at papers by professor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de a primary analysis of papers contained in journal articles in the field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other words, this study analyzed journal articles by year, professor's designation, current professor's sex, ranking of papers contained by college where the professor is engaged, ranking of papers contained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he average number of journal articles by individual professor, classification of subjects of papers contained, and data type of cited literature by year.

In order to conduct a secondary analysis of cited literature, the study selected 130 articles of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that are frequently cited out of 33,352 journal articles cited in 1,230 papers contained in journal articles, and analyzed them with items including the frequency of citation of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by year, the life span of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and the frequency of citation of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Finally,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on whether or not 43 Korean and foreign journals that are cited over 1.0% of the total, which means that they are frequently cited, are subscribed to in colleges through the websites of the libraries of colleges

where 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i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study selected 43 that are most frequently cited out of 130 Korean and foreign journals that are frequently cited. Among the Korean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Doseogwan", and "Korean Library Association Journal" were cited frequently in that order, and among foreign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Library Trends",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were most frequently cited in that order.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of cited literature, this study is to propose necessary standards for selecting and reading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libraries of Korean colleges where 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is established.

Key words: Literature and Information Science,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cited literature, cited analysis, literature